

[61] 1월

초 1일(정해) 맑음, 늦게 잠깐 눈이 왔다. 경상 수사 조방장 및 여러 장수들이 모두 와서 모였다.

초 2일(무자) 맑음,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아니했다. 이날 새 배에 낙괴(落塊)했다. 해남 현감(* 유형-柳珩)이 와서 보고 돌아갔다. 송대립, 송득운, 김봉만이 각 고을로 나아갔다. 진도 군수가 와서 보고 돌아갔다.

초 3일(기축) 맑음, 이언량, 송응기 등이 (이하 글자가 떨어져서 빠졌음).....

초 4일(경인) 맑음, 무안 현감(* 남언조-南彦祚)을 곤장을 때리었다.

(아래는 글자가 빠졌음)

<초 5일부터 9월 14일까지 빠졌음>

[62] 9월

15일(정유) 맑음, 진도독(陳都督 * 인-璘)과 함께 일제히 행군하여 나로도(* 고흥군 동래면)에 이르러 잤다.

16일(무술) 맑음, 나로도에 머무르면서 도독과 술을 마셨다.

17일(기해) 맑음, 나로도에 머물며 진(陳)과 함께 술을 마셨다.

18일(경자) 맑음, 오후 2시에 행군하여 방담(* 여천군 돌산면)에 이르러 잤다.

19일(신축) 맑음, 아침에 좌수영(* 여수읍) 앞 바다로 옮겨 장박하니 눈에 보이는 것이 참 많았다. 자정에 달을 타고 하개도(何介島)에 옮겨 대었다가 날새기 전에 행군했다.

20일(임인) 맑음, 오전 8시에 유도(柚島 * 혹은 유도-광양군 골약면 송도)에 이르니 명나라 장수 육군 유제독(柳提督 * 정-縱)이 벌써 진군하였다. 수륙으로 협공하니 적의 기세가 크게 꺾여 두려워하는 모양이 많기로 수군이 드나들며 대포를 쏘았다.

21일(계묘) 맑음, 아침에 진군하여 흑 활을 쏘고 흑 화포를 놓고 종일 싸웠으나 물이 매우 얕아서 진격할 수가 없었다. 남해의 적이 경쾌선을 타고 들어와서 정탐하려 하므로 허사인(許思仁)들이 추격했더니 적은 육지에 내려 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 배와 여러 가지 물건을 뺏았다가 도독에게 바쳤다.

22일(갑진) 맑음, 아침에 진군하여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가 유격(遊擊)이 왼편 어깨에 탄환을 맞았으나, 중상은 아니었다. 명나라 군인 11명이 탄환에 맞아 죽었다.

지세포 만호와 옥포 만호도 탄환에 맞았다.

23일(을사) 맑음, 도독이 화를 내고 서천 만호 및 홍주 대장과 한산 대장을 각각 곤장 7대를 때리었다. 금강도, 제포, 회령포에게도 함께 15대씩 때리었다.

24일(병오) 맑음, 진대강(陳大綱)이 돌아왔다. 원수의 군관이 서류를 가지고 왔다. 충청 병사(* 이시연)의 군관 김정현(金鼎鉉)이 왔다. 남해 사람 김덕유(金德有)들 5인이 나와서 그 고을 적의 정세를 전했다.

25일(정미) 맑음, 진대강이 돌아와서 유제독의 편지를 전했다. 이날은 육군은 비록 공격을 하려고 하나 기구가 완전치 못하였다. 김정현이 보러 왔다.

26일(무신) 맑음, 육군의 기구가 아직 갖추지 못하였다. 정응룡(鄭應龍)이 와서 북도(北道)의 일을 말했다.

27일(기유) 아침에 잠시 비가 뿌리고 서풍이 세게 불었다. 아침에 형군문(刑軍門 * 개-)이 글을 보내어 해군이 신속히 진군한 것을 칭찬했다. 식후에 진도독을 보고 조용히 의논했다.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저녁에 신호의(愼好義)가 보러 왔다가 갔다.

28일(경술) 맑았으나 서풍이 세게 불어 크고 작은 배들이 출입할 수 없었다.

29일(신해) 맑음.

30일(임자) 맑음, 이날 저녁에 왕유경(* 원주-元周) 복유경(* 승-昇) 이파총(李把摠 * 천상-天常)이 배 백여 척을 거느리고 진에 왔다. 이날 밤 불빛이 휘황하여 적도들의 간담이 떨어졌을 것이다.

[63] 10월

초 1일(계축) 맑음, 도독이 새벽에 유제독에게로 가서 잠깐 서로 이야기했다.

초 2일(갑인) 맑음, 오전 6시에 진군했는데, 우리 해군이 먼저 나가 오정까지 서로 싸워적을 많이 죽였다. 사도 첨사(*황세득)가 탄환에 맞아 전사하고 이청일(李靑一)도 역시 전사하고 제포 만호 주 의수와 사랑 만호 김성옥, 해남 현감 유형, 진도 군수 선 의문, 강진 현감 송상보는 탄환에 맞았으나 죽지는 아니했다.

초 3일(을묘) 맑음, 도독이 유제독의 비밀 서신에 의하여 초저녁에 나가 싸워 자정에 이르도록 쳐부수어 사선(沙船 *명나라 배) 19척과 호선(호船 *명나라 배) 20여척이 불타 도독이 뛰고 절고 하는 것은 형언할 길이 없었다. 안골 만호 우수가 탄환에 맞았다.

초 4일(병진) 맑음, 이른 아침에 배를 출동하여 적을 공격하며 종일 서로 싸웠는데 적들은 허둥지둥 달아났다.

초 5일(정사) 맑음, 서풍이 세게 불어 배들이 겨우 정박하고 해를 보냈다.

초 6일(무오) 맑았으나 서풍이 세게 불었다. 도원수가 군관을 보내어 편지를 전하되, 유제독이 달아나려고 한다 하였다. 통분하다, 통분하다. 나랏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초 7일(기미) 맑음, 아침에 송 한련이 군량 4섬, 조1섬, 기름 5되, 꿀 3되를 바치고 김태정(金太丁)은 쌀 2섬 1말을 바쳤다.

초 8일(경신) 맑음.

초 9일(신유) 육군이 이미 철수하였으므로 도독과 함께 배를 거느리고 행선하여 바닷가 정자에 이르렀다.

초10일(임술) 좌수영(*여수읍)에 이르렀다.

11일(계해) 맑음.

12일(갑자) 나로도(*고흥군 봉래면)에 이르렀다.

【13일부터 11월 초7일까지는 빠졌음】

[64] 11월

초 8일 도독부를 방문하여 위로연을 베풀어 종일 술을 마시고 어두워 돌아왔다. 조금 있다가 도독이 보자고 청하므로 곧 나갔더니, 도독이 말하기를 순천 왜교(*송주군 해룡면 신성리)의 적들이 초10일 사이에 도망해 철퇴하는 기별이 육지로부터 통문이 왔으니 급히 진군하여 돌아가는 길을 끊어 막자 했다.

초 9일 도독과 더불어 일제히 행군하여 백서량(白嶼梁 *여천군 남면)에 이르러 진을 쳤다.

초10일 좌수영 앞바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11일 유도(*광양군 골약면 송도)에 이르러 진을 쳤다.

12일

13일 왜선 10여 척이 장도(獐島 *광양군 골약면)에 나타나므로 곧 도독과 약속하고, 해군을 거느리고 추격하니 왜선은 움츠려 들어가 종일 나오지 아니했다. 도독과 함께 장도로 돌아와 진을 쳤다.

14일 왜선 2척이 강화할 차로 바다 가운데까지 나오니 도독이 왜말 통역관을 시켜 조용히 왜선을 마중하여 붉은 기와 환도 등 물건을 받았다. 오후8시에 왜장이 작은 배를 타고 도독부로 들어와서 돼지 2마리와 술 2통을 도독에게 바치고 갔다.

15일 이른 아침에 도독을 가 보고 잠깐 이야기하고 돌아왔다. 왜선 2척이 강화할 차로 두 번, 세 번 도독의 진중으로 드나들었다.

16일 도독이 진 문동을 시켜 왜영으로 들어 보내더니 조금 있다가 왜선 3척이 말 1필과 창, 칼 등을 도독에게 가져다 바쳤다.

17일(어제 북병장 발포 만호 소계남과 당진포 만호 조효열 등이, 왜의 중간배 1척이 군량을 가득히 싣고 남해로부터 바다를 건너는 것을 한산도 앞 바다에까지 추격하였더니 왜적은 기

숨을 타고 육지로 올라가 달아났고, 작은 왜선과 군량은 명나라 군사에게 빼앗기고 빈 손으로 와서 보고했다.

【11월 초8일부터 17일까지는 간지(干支)가 빠졌음.】